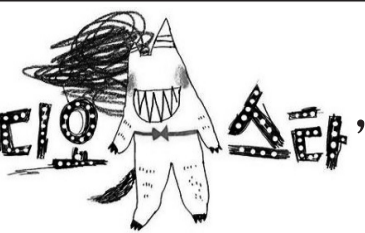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스페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어린이 동물티비 30 생생정보 스페셜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를 살리는 1교시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KBS광주 열린마당	1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MBC 뉴스특보	40 닥터 365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30 신데렐라 게임(재)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인간극장 스페셜	45 뽀뽀 좋아 좋아 스페셜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1	10 바다 건너 사랑 3(재)	10 다라미 패밀리(재)	15 헬로키키 공학교실(재) 30 주니토니 이야기(재)	0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모델 캘리포니아(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김원희의 윈드랜드(재)
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2	00 KBS 뉴스 10 토크엔터(재) 40 어쩌다 마주친 퀴즈(재)			00 뉴스브리핑
3	00 전국을 달린다 1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00 KBS 뉴스타임 15 어린이 동물티비 45 내 비밀친구 햄피(재)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불후의 명곡 스페셜	55 5시 뉴스와 경제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생생 3D!	05 뮤직뱅크	10 똑딱구조대 3(재) 25 친절한 전주씨(재)	00 SBS 오뉴스 50 닥터 365 55 보물지도(재)
6	00 6시 내고향	35 2TV 생생정보	05 테마여행 길	55 도시락
7	00 KBS 뉴스 7 40 별별다방	50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	05 친절한 전주씨 40 MBC 뉴스토크	50 SBS 8 뉴스
8	30 결혼하자 맹공어!	30 신상출시 편스토랑	40 모델 캘리포니아(재)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 9		50 모델 캘리포니아	00 궁금한 이야기 Y
10	00 추적 60분 50 KBS 뉴스라인W	00 더 시즌즈 -이영자의 레인보우		00 나의 완벽한 비서
11	30 설 기획 독립영화관 <들핀>	30 수목드라마 수상한 그녀(재)	10 나 혼자 산다	30 유니버스 리그
12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분 코너서 최장수 토크쇼 된 '라디오스타'



다음달 5일 900회... 폐지 위기감에 만든 "다음주에 만나요 제발" 인사 시그니처 돼



라디오스타 MC 장도연(왼쪽부터)·김구라·유세운·김국진.

2007년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작은 코너가 하나 생겼다. 강호동이 이끄는 메인 코너 '무릎팍도사'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빈 시간을 담당하는 미니 코너, 지상파 최장수 토크쇼인 '라디오스타'는 그렇게 시작했다.

초반에는 분량도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했다. 10~15분씩 어질 때도 있지만, '무릎팍도사'에 대형 스타라도 나오는 날이면 '라디오스타' 분량은 5분 안팎으로 쪼그라들기도 했다.

MC들의 마지막 인사가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인 이유도, 언제든지 코너가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라디오스타'가 다음달 5일이면 어느덧 900회를 맞는다.

원년 멤버인 김구라는 22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900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에도 유명 토크쇼, 뛰어난 MC들이 많았다"며 "우리는 정통 토크쇼는 아니고, 좀 가벼우면서도 편한 성질의 프로그램이라 오래갈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라디오스타'의 가장 큰 매력은 거침없어서도 진솔한 날 것의 이야기가 오간다는 점이다.

김국진은 "처음 '라디오스타'를 시작할 때는 너무 공격적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안절부절못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공격성이) 장점이 되고, 무질서 속의 질서가 '라디오스타'만의 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돌아봤다.

장도연도 "흔히 '철들면 재미없다'고 하는데 선배님들에게 아직 다 개구쟁이 같은 면모가 있다"며 "선배들의 대화를 보면서

많이 배운다"고 했다.

최장수 토크쇼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라디오스타'는 트렌디함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1년생 김명연 PD가 연출을 맡고 있고, 시의성 있으면서도 신선한 인물들을 섭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김 PD는 "종합 과자 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연령대에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며 "2007년에 나온 방송이 지금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남녀노소에 잘 어필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MC와 제작진은 지난 900회차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게스트로는 솔비, 박준형, 브라이언, 홍진경, 임우일 등을 꼽았다.

최근 모자를 쓰고 출연해 태도 논란에 휩싸인 배우 구혜선에 대해서는 김 PD가 직접 "구혜선 씨의 녹화 태도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논란이 빚어져 아쉽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게스트를 초대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최수연 내레이터 대표급이 취업준비생에게 인기 있는 회사 대표가 나와서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줘도 좋다"며 "장도연 씨를 좋다고 하는 배우도 많은 것으로 하는데, 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900회는 다음달 공개된다.

"저희가 900회를 거의 5개월간 준비했습니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주제로 게스트를 구성했고, 감히 '레전드' (전설)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김명연 PD)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4일 (음 12월 25일 쯤)

36년생 참으로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리라. 48년생 절대적이 아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성이 있느니라. 60년생 얼마나 오래 끌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를 보느냐이다. 72년생 순간의 착각이 커다란 병폐를 낳을 수도 있다. 84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대단히 크다. 96년생 확실한 이득이 될 만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82

37년생 되돌아갈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 49년생 궁극적으로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61년생 이의를 제기할 만한 문제점이 보인다. 73년생 여태까지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별 희한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85년생 충실히 대응하면서 알찬 사건으로 만들자. 97년생 세태에 좌우되지 말고 본래의 뜻대로 하라. 행운의 숫자 : 18, 94

38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니라. 50년생 매우 어색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으니 처신을 잘 해야겠다. 62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74년생 미리의사를 개진해보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운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98년생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09, 84

39년생 혼신이 빛어질 수도 있으니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자. 51년생 좀 더 크고 먼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울린다. 63년생 굳이 내심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니 알고만 있으면 된다. 75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87년생 성취의 길목에 이를 것이다. 99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78

40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52년생 선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받아들이는 편이 낫겠다. 64년생 현재에 국한 시키지 말고 미래 지향적인 시각을 갖자. 76년생 근시안적인 관점은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88년생 준비해 두었던 것을 시의적절하게 쓰게 된다. 00년생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0, 89

41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53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 나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65년생 준수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77년생 검증되지 않은 단계이니 조심해야만 한다. 89년생 지금 바로잡아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01년생 숨어 있는 바를 찾게 되는 희한함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4, 85

42년생 일단 예봉을 피한 다음에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4년생 일치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다. 66년생 지나치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라. 78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90년생 다시 한번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02년생 먼저 손을 쓴다면 성사된다. 행운의 숫자 : 44, 83

43년생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단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55년생 근원적인 부분부터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겠다. 67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니라. 79년생 재중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91년생 일찌감치 중증했다가 늦게나마 풀리는 양태이다. 03년생 바람직 한 일을 꾀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47, 71

44년생 세태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절대로 주관을 잃지 말라. 56년생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68년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이니 버리는 것이 좋다. 80년생 소중히 여겨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92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순해를 면하게 된다. 04년생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92

45년생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추상감이 결단해야 한다. 57년생 숨어 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된다. 69년생 림든 만큼에 비례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81년생 애초의 예상대로라면 손기능을 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93년생 공물여 왔던 것에 자질이 빛어질 수가 있다. 05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행운의 숫자 : 42, 72

46년생 동선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58년생 측면에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의 길만 묵묵히 걸어간다면 그만이다. 70년생 약간의 변동 수가 보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82년생 확률적인 시국을 오류를 부르기엔 충분하다. 94년생 무심코 방지한다면 더 악화되리라. 06년생 주저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행운의 숫자 : 12, 59

47년생 지금은 좋고 나쁠을 따질 계제가 아니니 우선, 확실히 추진하고 볼 일이다. 59년생 주변의 여건과 관련하여 호흡을 맞추어야만 하리라. 71년생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호전되어 가고 있다. 83년생 소금 팔러 나가려니가 비가 내리는 이치이다. 95년생 명확한 기준으로 개념을 분리하자. 07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행운의 숫자 : 25, 73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www.kwangshin.ac.kr